

被 服 과 디 자 인

Clothing and Design

In sun Ok Pusan Univ.

玉

仁

善

(부산대학)

目 次

序 論

1. design 의 基礎 (法則과 手法)
2. design 의 基本型
3. design 의 使用되는 裝飾, 技巧.
4. 우리의 體格
5. 個性과 design

結 論

序 論

被服 design 은 人體의 各部의 均衡에 適合하게 하기 爲하여 素材가 가지고 있는 美를 가짐과 同時에 人間의 本能인 美慾을 滿足시키기 爲하여 形과 色에 依하여 調和된 綜合的인 美를 達成하게끔 하는 것이 目的이다.

人體의 均衡에 對하여서는 勿論, 個人의 差는 있겠지만 또한 東洋人과 西洋人과의 體格을 比較하면 身長, 體重, 胸圍等에 大端한 差違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의 表面積이든가 運動, 動作의 姿勢等을 調査研究하여 우리 韓國人에게 가장 適合한 design 을 考察하여 作成하는 것이 우리들의 使命이라고 생각한다.

盲目的으로 西洋 dress 를 模倣한다든가, 西洋의 風習과 같이 한다는 것은 到底히 不可能하다. 日帝의 生活狀態를 생각하여 韓國人의 特性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服裝의 design 을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優先 基礎知識의 涵養과 技術로서 美에 依하여 充分히 體格의 基礎를 “그림으로” 表現함이 必要하다. 그리고 그것 등이 技術의 鍊磨와 美的 思想의 養成이 合쳐서 完全에 가까운 design 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美的思想의 養成에는 裝飾의 原理인

統一, 調和, 均衡, 比例, 律動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들을 技術의 實際에 옮기려던 素材의 特質 例를 들면 絹이나 木綿이나, 人絹, 合成纖維, 毛織物 등의 柔軟性, 彈力性, 光澤度 등이 우리들의 感覺에 對하여 어떠한 觸感和 視覺을 주는가 그것에 依하여 아름다운 맛은 어떠한 形態의 境遇에 가장 어울리는가를 알아야 한다.

人間으로서 被服은 단지 防寒, 防暑, 羞恥의 觀念에서만 必要한 것이 아니다. 行動하기 쉬운 것, 입기(着衣) 쉬운 것,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나 아름다운 美의 調和의 感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의 目的은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술기」든가 주름이든가 겹치는 部分이든가 模樣 等に 依하여 線과 面과 몸과의 三者가 합쳐서 裁縫技術에 나타남으로써 훌륭한 被服으로서의 造形美가 成立되는 것이다. 元來 dress는 그의 特質上으로 보면 單只 本能的인 美的 慾求를 滿足시키려는 裝飾物은 아니다. 生活面에서도 dress의 design이 自己가 生覺하는 것과 같이 考察할 수 있다면 그의 目的에 맞는 形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design이라는 것은 사치한 形態美나 色彩美에만 머리를 쓰면 生活面을 소홀히 하게 된다. 卽 裝飾的인 드레스만을 design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그럼으로 design은 實用性으로 보아 第二義的으로 取扱되는 고로 流行에만 흘러가기 쉬운 結果가 된다.

流行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流行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流行에 쫓기는 反對 現象이 되기가 쉽다. 거리에서 販賣되고 있는 style book을 보면 그 選擇이 어려울만큼 여러 가지의 style book이 있고 아메리카의 流行이 있고 佛蘭西의 流行이 있고 韃靼等이 있다.

그러므로 研究는 2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에 도취하여 根本原理를 生覺할 餘裕가 없어 아름다운 꽃이 花園에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할가 하는 것을 생각도 하려고 안한다. 根本原理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流行만이 눈에 띠게 쉬운 現代이다. 그러므로 本質을 研究하는 것은 먼 일로만 생각하고 等閑視하는 結果 職業的 技術에 흐르게 되어 模倣性만이 重要視되는 傾向이 있다.

「模倣은 하기 쉽지만 創作은 힘든 것이다.」 元來 洋裁의 技術은 裁斷, 裁縫上에 依하여 아름다운 形態가 實際化되는 것이지만 製圖, 原型, 보다 一步 前進하여 design의 研究는 特殊 技能이 있는 사람만이 專用되고 있는 것과 같은 狀態에 놓여져 있었다. 卽 design보다 製圖나 原型이 손쉽게 自己 드레스를 만드는데 便利하고 가까운 길이라고 生覺하고 있음으로 design에서부터 始作하는 것은 大端히 非能率的이라고 생각하여 卽 곳 利用할 수 없는 것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같이 생각된다.

그러므로 裁縫師로서의 技術도 必要하지만 設상을 研究하여 그의 技術을 鍊磨함으로써 참된 style의 堅更한 根據가 생길 수 있다.

被服의 design은 被服 全般에 걸쳐서 綜合的인 調和美를 찾는 것이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덩어리의 型體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함과 同時에 實用性이 있는 統一된 美를 갖춘 것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實用的인 美가 갖추어진 被服이 生活的 美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려면 卽 形態의 美를 把握할 수 있는 方法의 design의 研究가 곳 應用되어서 더 한층 服裝史을 보면 時代의 흐름과 같이 被服의 世界가 차차 明朗하게 되어 갈 것이다.

1. design의 基礎(法則과 手法)

디자인(design)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素材와 要素를 秩序를 세워서 再組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짝짝이로 (한가지 한가지 따로 따로) 놓여 있었던 것이 한개의 全의 統一體로서 아름답게 꾸며진다는 것이다.

卽 原理라는 것이 그것이며 普通 統一調和, accent, 焦點(point), 均衡比例(proportion), 律動(rhythm)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統一과 調和

design의 있어서 가장 重要한 原理는 統一를 가지는 것과 調和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design을 形成하는 各要素間에 서로 共通되는 어떤 性格을 갖게 하고 한 부분이 他部分에 對하여 關連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各要素間에 特別注意를 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써 統一感을 引導하는 方法을 取하는 수도 있다. 前者는 말하자면 類型的인 同調의 統一이고 後者는 異質的인 異調의 統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하고 前者는 要素間的 變化가 심할 때에 有效한 것이고 後者는 要素間에 變化가 적고 單調할 때에 利用도가 높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統一을 한가지의 規程된 型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저히 다른 여러 가지 法則과 手法를 現實의 對象으로 올바르게 適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美的 作品에는 그 自體만이 가지고 있는 獨特한 統一狀態가 있어야 하고 統一의 型은 作品에 依하여 그것의 獨特한 것이야 한다. 또 調和에 對하여서도 그것은 단 한가지의 孤立的인 法則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도리어 여러 가지 法則의 正當한 適用으로써 引導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2) accent와 焦點(point)

우리들의 視覺은 보는 對象物의 강한 部分과 變化가 있는 部分에 끌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中心으로하여 一種의 視覺作用이 일어나게 된다. 이 變化가 있는 部分과 강한 部分은 accent 또는 point라 한다. accent라는 것은 元來 音의 世界의 用

語이고 強調은가 強意을 가리키지만 造形으로서는 強調部位, 中心部 變化 등과 같이 point의 意味에도 使用된다. 即 變化가 적고 單調롭게 되기 쉬운 狀態에서는 우리들이 美的 感情은 滿足할 수가 없으므로 變化을 시켜가면서 統一에 引導하는 方向으로 利用하게 되는 것이다. accent와 point도 統一과 調和와 같이 單一한 것 또는 唯一의 場所에서 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가장 많은 것은 恒常 어떠한 形으로써 他的 部分과의 關聯性에 있어서 볼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그것은 마치 畫面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部分에 강한 色을 使用함과 同時에 形에 있어서도 銳利한 對立과 異質의 調整을 求하여 同時에 가장 重要하다고 볼 수 없는 部分을 그의 從屬의 狀態로 두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런 段階가 여러번 겹침으로써 畫面은 構成되는 것이다. 이것과 같이 design에 關하여서는 모든 部分이 어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된다. 한 部分만이 너무 強調된다는 것은 結局은 그 곳도 意味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強調한다는 것은 도리어 無로 돌리게 하는 危險이 있고 同時에 그것이 또 여러 方向에 같은 힘으로써 分散되는 것도 意味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

(3) 比例와 均衡

物件의 相違를 나타내는 데는 兩者間의 性質이 全然 틀리는 觀點으로 表示되는 때와 類似의 觀點에서 表示되는 때가 있다. 即 大와 小라는 關係와 大와 大의 中間의 相違라고 보는 方法이지만 前者는 即 對比(contrast)의 關係이고 後者는 比例(proportion)의 關係이다. 比例라는 것은 이와 같이 類似性의 위에서 表示되는 變化의 程度고 相互間에 있어서의 比較上의 比重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의 程度가 他的 部分의 程度에 適當한 關係를 가질 때에 그것은 좋은 比例(good proportion)라고 불리운다. 좋은 比例의 特質은 design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件의 하나라고 數的으로 表示할 수 있는 唯一한 것이다. 이것에 對하여는 過去에 있어서도 尙大한 研究를 하여 왔다. 그 中에서도 有名한 것은 黃金分割(golden section)이고 이 理論의 方式은 다음과 같다. 即 「一定의 直線을 찢은 部分과 긴 部分의 比를 긴 部分과 全體와의 比에 같이 되게끔 比率한다」라는 것이다.

圖 1. 黃金分割(golden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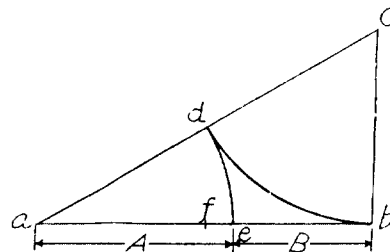
(그림 直角 三角形에 依한 푸로 모-존)

abc 直角三角形 ab 上에 點

ac: eb의 比는

B.....1로 하면

A.....1.618이 됨



結果의 數字는 3 : 5, 5 : 8, 8 : 13, 13 : 21과 같이 等比數를 낸다. 그리고 이 比는 圖(그림 1)과 같은 圖形으로써 幾何學的으로 作成할 수가 있다.

勿論 比例에는 1 : 1이라고 하는 極限과 1 : 2이라고 하는 比例도 當然히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大概 너무나 明確하므로 特殊한 때에만 使用된다.

洗鍊된 感覺에는 그리 쉽게 가려낼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困難하지 않도록 한 比例의 關係를 希望할 때가 많다. 그리고 1 : 1의 關係는 比例라고 하는 것보다 도리어 後에 말하는 對稱(symmetry)의 關係에 놓여지는 것이다. 단지 이것들의 比例의 法則에 關하여 우리들이 注意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그의 數의 理論이 어떠한 眞實하고 證明이 된 것이다 할지라도 단지 그것을 正當히 適用하던 꼭 좋은 結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design의 素因은 大端히 複雜한 것이므로 完全히 數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束縛에서 떨어져서 自由로운 立場에서 構成한 것이 結果的으로 그러한 關係에 끌어갈 수 있는 때가 훨씬 많다. 卽 經驗에서 蓄積된 靈感(인스퍼레이션)이 自由롭게 그의 理論을 驅使할 수 있는 立場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可能的 것이고 가장 많은 것은 作者의 感受性的의 問題임과 同時에 아름다운 感과 正當한 것에 對한 訓練으로써 쌓은 個性의인 創造力으로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比例는 또 마땅히 調和에 連結되어 均衡에도 直結한다.

均衡(balance)은 이와 같이 좋은 比例의 結果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比例가 주로 길 이와 量의 數的 關係를 土臺로 한 것에 對하여 均衡은 도리어 形이나 色의 움직임의 調節이라는 觀念을 土臺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均衡이라는 것은 空間에 있어서의 吸引力의 平均化에 依하여 모든 要素를 安樂한 調和的 統合으로 引導하는 手段이라고도 할 수 있다. 均衡에는 恒常 편어덜(formal)한 것 卽 前出의 對稱과 인편어덜(informal)한 것 卽 不對稱(unsymmetry)을 말하게 되나 對稱은 左右 또는 上下 또 그 어떠한 것이든지 同形인 것이므로 더 한층 明確하고 端整한 孤立感을 주고 조용한 莊重感이 넘쳐 흐르게 된다. 이것에 對하여 不對稱은 가장 柔和한 親近感과 溫和한 感을 준다. 이때에는 一方에 相應한 充分한 興味를 他方に 있어서도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들은 그것을 無意識中에 一種의 均衡이라고 느낄 수 있으므로 一名 이것을 「감추어진 均衡」(occult balance)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不對稱은 이와 같이 優秀한 均衡과 같이 쓰여짐으로써 美的 感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때가 많다. 不對稱은 가끔 不均衡(unbalance)과 同義로 使用되지만 後者は 均衡의 否定을 前提로 한 動感이 甚한 狀態를 가리키는 것이 本來임으로 均衡을 前提로 한 不對稱은 自然히 區別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4) 律 動(rhythm)

律動 即 rhythm 에 對하여서는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不充分的 認識이 있다. 그 第一은 rhythm 하는 것은 단지 반복(repetition)과 漸層(gradation)과 轉移(transition)에 依하여 생긴다는 생각이다.

第二는 rhythm 은 流線으로써 생기는 一種의 움직임이라는 安易한 解釋이다.

確實이 이것들은 rhythm 의 有力한 前提이고 그것의 關聯되는 性質의 것이지만 단지 그것만으로써 rhythm 의 本質을 理解할 수 있을까? 반복과 流線을 柔和하게 誘導함으로써 當然히 리듬(rhythm)이라는 感이 生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의 容易한 것과 形式의 單純한 것은 그의 容易함의 通할 수 있으므로 結果는 弱한 迫力이 不足한 形式의인 rhythm 으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rhythm 의 本質은 大端히 어렵게 된다. 一體로 造形에 있어서의 rhythm 은 關聯性(relation)의 있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關聯性을 가지는 곳에서는 自然 視察은 容易하게 誘導되므로 一種의 視覺的 勤勞가 생긴다. 確實히 이 關聯있는 動勢(relative movement)가 rhythm 의 根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方向은 作家나 作品이에 있어서 同一하지는 않고 各各 다른 特有的 表現法을 한다.

그러므로 rhythm 은 그의 design 의 本質의 特色을 表示하는 性質이고 design 의 生命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같이 rhythm 은 design 의 特色과 性格에 나타나는 大端히 重要的 法則이라 할 수 있다. 當然히 “이 여러 가지 法則의 適用의 成果에 期待되는 것이 크다.

움직이는 人體에 입히는 服裝에서는 特히 그러하다.

훌륭한 design 의 rhythm 은 恒常 單位나 成分이 決定的인 表現에 向하여 效果인게 配烈되어 機能 그 自體의 完全한 아름다움(美)에 到達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랜 期間에 洗練된 感性에 依하여 처음으로 可能하다고 말할 수 있다.

以上 說明한 여러 가지의 法則과 手法은 全部 單一한 것이라고 生覺하여서는 아니된다. 端的으로 말하면 同一한 것을 몇가지의 觀點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은 서로 有機的인 關聯性을 가지고 成立하는 有機的 統一(organic unity)의 狀態에 歸한다는 點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2. design 의 基本型

design 은 基本의 形에다가 後에 添加하여 만들어진다는 等에 二重에 것은 아니고, 全部는 最初에서부터 組立된 統合體 即 처음부터 한점의 것이다.

그렇지만 初步에서부터 그것을 바라는 것은 大端히 容易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人體가 하는 極限된 造形에 있어서 또 風土나 慣習이나 流行이나 하는 여러 가지 條件에 支配되기 쉬운 服裝에 있어서는 그의 特性인 때문에 제멋대로의 無謀한 獨創은 許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流行의 型은 어떠한 意味에서는 반복하여 存在하는 것이다. 이 點에서 하면은 過去에 나타난 몇 가지의 型을 어떠한 design의 土臺로 하여 出發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基本型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意味에서 말한 것이다. 裁斷이나 製圖上에서는 恒常 即 原型的인 것이 基本型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基本型이라는 것은 服裝型的 몇 가지의 原型的인 「型」본이라고 볼 수 있다.

(1) 시루엣트(Silhouette)

服裝 그 全形은 恒常 시루엣트(silhouette)라고 하나 背景에 對하여서는 確實히 境界를 근 服裝의 外形의 것이다. 시루엣트는 그 物件을 區別하는 가장 가까운 條件이고 空間에서 獨立된 物件의 存在와 位置와 境界 등을 限定하므로 그의 形의 特性을 가장 端的으로 表示한다.

그러하므로 디자인 스스로도 重要視되는 것이고 極端으로 말하면 design의 最終의 目標은 모두 시루엣트의 表現에 놓여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루엣트 그 自身은 어디까지나 內部 構造의 必然性이 外面에 나타난 結果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服裝의 部分을 無視하고 시루엣트가 成立되는 것은 아니고 當然히 部分部分의 成果의 結晶으로써의 시루엣트인 것이다. 服裝의 型은 여러 가지의 시루엣트를 우리들에게 提示해 주지만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들은 主로 다음 세 가지의 事情에 基本되는 것이다. 第一은 適合의 程度이라는 것, 第二은 (그의 部位), 第三은 (길이)이라는 것이다. 適合의 程度의 手法은 大概 셋으로 分類한다.

第一은 人體에 對하여 材料를 꼭 適合(close fit)시키는 것과

第二은 어느 程度 柔和하게 半適合(semi-fit)시키는 것과

第三은 反對로 外形線을 擴大(expand)시키는 것이다.

이것들의 手法이 人體의 어떠한 部分에 있어서 어떠한 複合의 狀態를 表示하는가에 따라서 服裝의 시루엣트가 決定되는 것이므로 그의 種別은 無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基本的인 立場에서 考察한다면 그의 範圍는 H字型에서 X字型까지 걸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兩者間에는 A型和 V型, 或은 O型等도 存在하고 X字型 그 自體도 交叉點의 位置와 角度 或은 線의 種類의 變化가 생긴다.

(2) 자켓트(jacket)와 부라우스(blouse)

투피스(twopiece) 或은 세파 레에스에 있어서 上衣의 種類는 歷史가 얕으니 만큼

그렇게 種別이 複離하지 않다. 一般的으로 히프 라인(hip lien)보다 길어지면 所謂 코트(coat)에 들어가고 코트의 種類로 되면 大端히 複離하다. 자케트의 基本型은 大體로 適合, 裁縫의 樣態, 길이 등에 依하여 決定된다.

부라우스(blouse)는 20世紀의 새로운 上衣으로써 現今에 이르러서는 一種의 자케트의 位置에까지 오르게 되어 그 境界가 漠然하게 되었지만 大體로 季節에 따라서 夏節用, 春秋用, 冬節用으로 나누어지고 또 着用法의 狀態에 依하여 셋트인 것과 오바와 미디어로 나누어지고 또 바느질法에 따라서도 테라드(tailor), 샤프, 드레스시(dressy) 등으로 나누어진다.

(3) skirt

skirt는 女子服의 가장 特色으로 하는 部分이므로 그의 變化도 大端히 많으나 基本的으로는 다음 네 가지의 次元의 素因에 依하여 變化되고 있다.

第一은 높이 即 길이,

第二는 幅 即 넓이,

第三은 깊이 即 側面에 있어서의 넓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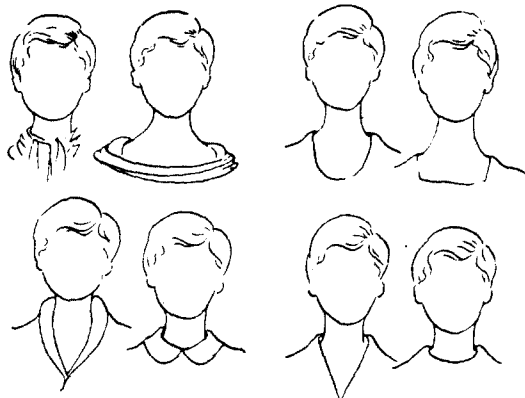
勿論 其他의 素因으로써 裁斷上, 裁縫上, 裝飾技巧上 全體의 形態上 등으로 여러 가지로 區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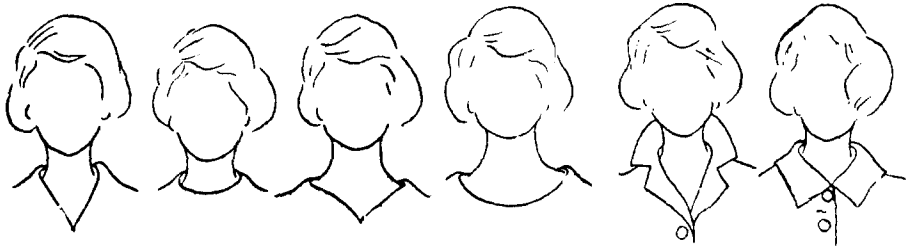
(4) 넥크라인과 카라—(neckline and collar)

服裝中에 waist 라인과 같이 가장 重要한 特徵을 表示하는 것은 넥크라인과 카라—이다. 이것이 맞지 않는 design 은 다른 部分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도 全然 意味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型이나 種別이 大端히 많고 이것을 새로 創作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基本型으로써의 넥크라인은 높이로써는 하이, 나츄라루, 로, 型으로써는 둥근型, U型, 보트型, 角型, V型, 하트型 등으로 나누어지고, 카라의 形은 이것들의 基本으로써 形, 높이, 硬軟, 크기, 操作, 裝飾 등에 依하여 數多의 形態가 생긴다.

現今 使用度가 높은 neckline collar 를 말하면 그림과 같다.





(5) sleeve 와 카후스

waist 나 skirt 와 같이 服裝全體의 外形과 平衡(balance)에 가장 強한 影響을 주는 것은 소매(sleeve)이다.

소매는 design 決定上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前世紀의 半頃까지는 非機能的이라고 하지만 現代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것이 없어지고 自由로운 立場에서 構成되도록 되었다. 소매의 形은 基本的으로는 다음 세 개를 土臺로 하여 分類된다. 即 第一은 소매 둘레의 位置와 構造, 第二는 裁斷上으로, 第三은 길이의 長短이다. 그렇지만 應用的 部面에 있어서는 變形의 狀態로부터 카후스의 狀態等으로써도 여러 가지 種別이 생기는 것이다.

(6) 포켓(pocket)

元來 機能면으로 볼 때 포켓(pocket)는 女性服으로써는 近來 sport 服을 除外하고는 大概 裝飾으로써의 役割로 變하여졌다.

그렇지만 그 美觀上의 機能은 大端히 重要하여 허술히 다룰 수는 없다. 理由는 單一치는 않지만 다음 事情에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即 胸部面은 人體中에서 動的의 면에서도 또 量的의 면에서도 가장 變化가 적은 部分인 것과 이 部分은 또 縱線의 強한 것에 比하여 橫線의 缺乏하기 쉬운 部分이기도 하므로 그것을 카바-하고 變化를 補充하는 手法으로써도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基本的인 것은 裁縫技巧上으로 箱形(welt pocket), 縫目式(seam pocket), 兩蓋式(flap pocket), 貼付式(patch pocket), 玉緣式(piping pocket) 등이 있고 位置에 따라 外側(outside pocket), 內側(in pocket), 時計주머니(watch pocket), 中央大型(kangaroo side pocket), 힛푸(hip pocket), 胸部(bust or yoke pocket) 등이다.

3. Design 에 使用되는 裝飾, 技巧

女性の 衣服에는 여러 가지 裝飾(trimnaing)이 써여지는 수가 많으나 그것들은 材料와 技法에 依하여 대단히 變化가 많다.

그 中에도 普遍的인 것은 機能과 裝飾의 雙方을 兼한 技法이고 이것들에 依하여 服裝은 一層 더 豊富한 形態美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1) 푸리-쓰와 탁크

布木의 直觀的인 柔軟한 맛을 一段 否定함으로써 整然한 無能感を 表現하려고 한 것이고 人工的인 주름으로써는 가장 普遍的인 技巧이라고 할 수 있다. 結果는 大概 規則的으로 반복된 平行線이나 放射線을 나타내는 것에서부터 統一感和 rhythm 感이 있고 格別한 아름다운 맛을 表現한다. 푸리-쓰는 푸레스의 程度와 주름 잡는 方法等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pl.=pleat)

- ① soft pl. ② unpressed pl. ③ knift pl. ④ side pl. ⑤ fox pl.
⑥ inverted pl. ⑦ fan pl. ⑧ accordion pl. ⑨ umbrella pl.

푸리-쓰는 一端이 解放됨으로써 同時에 넓어지는 機能을 充滿하나 박은 주름 或은 집은 주름으로 한 탁크는 類似한 外觀을 나타내지만 恒常 固定되어 있으므로 機能보다 도리어 裝飾을 主的으로 하는 技巧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푸리-쓰를 가장 많이 使用하는 부분은 skirt 이고 탁크는 blanse 의 前面이나 또는 품을 調節할 때의 副次的 技巧으로써 使用될 程度이다.

(2) 드레프와 후레야와 가자

pleat(푸리-쓰)나 탁크가 無機物인 人工의 주름이라면 이것들의 주름은 有機的인 自然의 주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드레-프는 감 自體의 餘剩部가 重力으로써 만들어지는 가장 自然스러운 주름이고 후레야-는 갈때기形으로 自然히 垂下된 狀態이고 가자-는 또 이것들의 주름을 人爲的으로 固定한 姿勢라고 볼 수가 있다. 單調롭게 되기 쉬운 감(布木)의 表面은 이러한 주름의 陰影과 길이로 因하여 豊富한 美的 感情으로 變하여진다.

특히 dressg 한 衣服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生命이기도 하므로 女性服에서는 利用의 範圍가 大端히 넓다.

pleat(푸리-쓰)나 탁크는 整然한 直線을 그려내므로 design 上에 効果도 幾何學的인 節度나 緊張感を 주게 되나 드레프나 후레야나 가자는 反對로 人體와 布木과를 一體化시키고 軟한 流線으로써 基體를 싸게 되므로 design 上의 効果도 自然成熟感和 安易感を 주게 된다.

(3) 파 후

부푸르게 하는 手法은 人爲的으로 誇張시킨 曲線을 形造하므로 파후의 目的은 自然

形の歪曲이라는 點에 注目된다. 그러므로 服裝全體의 平衡은 크게 使用된다. 다시 말하자면 袴는 形을 軟하게 하면서 空, 1 平衡을 整理하는 手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는 것은 소매와 뒷면이고 前者는 恒常 平衡한 平衡의 形을 가지고 後者에 있어서는 側面에 對하여 積極的인 平衡의 形을 取하는 것이 普通이다.

袴는 또 量的인 對比效果上에 큰 役割을 한다. 例를 들면 脛을 가늘게 보이고 싶을 때는 그곳에 袴를 만들 것이며 hip의 肥大感을 없이하고 싶으면 上衣의 뒷面에 袴를 만들 것이다. 即 量的 錯視作用이 利用되는 것이다.

량이 많은 袴는 成熟感을 增加시키고 량이 적은 袴는 可憐한 感을 增大시킨다.

(4) 시야링과 스모킹

裝飾, 주름으로써 가장 공이 들고 纖細한 것이다. 大體로 單調한 平面에 對하는 드리무으로써 使用되고 同時에 可憐한 美的 感情을 주게 하는 것에서 애기服(베비服)이나 幼兒服의 accent 로 利用된다.

5. 우리의 體格

신 체 발 육 상 황

체격검사 1956~1960(5개년분)

서울사범학교 학생 조사

여 자 신 장

나이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인 원
1956	138.2 4	142.2 77	148.7 119	150.5 126	152.6 188	153.5 148	155.7 132	156.0 104	155.9 32	930
1957	140.1 7	143.4 93	147.1 121	150.4 135	152.3 171	153.6 183	154.7 152	155.0 83	156.2 33	978
1958		141.9 72	147.0 72	150.5 141	153.0 132	154.3 137	154.5 204	155.0 91	156.1 11	941
1959	139.7 11	142.2 103	147.1 151	151.9 177	152.5 117	153.4 131	153.6 130	154.8 86	154.2 10	916
1960	138.5 19	142.7 132	146.4 146	150.7 149	152.9 105	154.1 126	154.2 112	154.4 63	155.2 9	861
평 균 인 원	139.13 41	142.48 477	147.24 690	150.8 728	152.66 713	153.58 725	154.5 730	155.04 427	156.02 95	4,626

여 자 체 중

연령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56	33.5	35.4	39.6	42.6	45.2	48.0	50.8	51.6	50.9
1957	32.9	36.7	39.4	43.9	44.9	47.2	49.8	49.8	51.5
1958		36.8	40.2	44.3	47.2	49.0	50.3	52.1	51.2
1959	34.5	36.4	40.4	45.5	46.5	48.6	50.3	51.5	50.8
1960	32.1	36.0	40.1	45.1	48.1	50.3	51.2	51.3	55.3
평 균	33.25	36.26	39.94	44.28	46.38	48.62	50.48	51.26	52.04

여 자 흉 위

연령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56	65.4	68.4	72.1	74.5	77.8	79.9	81.3	81.8	81.3
1957	65.0	69.1	70.4	73.6	75.4	77.4	78.4	79.4	80.4
1958		71.7	73.1	76.6	79.0	80.6	81.1	81.6	81.5
1959	66.0	67.7	71.5	76.2	77.5	78.9	80.4	81.0	79.5
1960	68.5	71.6	73.6	77.1	79.1	80.7	82.1	82.1	86.3
평 균	66.25	69.7	72.14	75.6	77.76	79.5	80.66	81.16	81.84

여 자 좌 고

연령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56	76.8	77.8	80.7	82.8	84.6	85.3	85.5	86.1	86.2
1957	76.3	78.8	80.6	83.4	83.9	85.2	85.9	86.0	86.8
1958		78.4	81.3	82.3	85.1	86.6	86.0	85.9	86.7
1959	77.6	78.4	81.7	84.6	85.2	85.8	86.3	86.7	86.2
1960	76.5	78.9	81.4	83.6	84.6	85.2	85.4	86.1	86.4
평 균	76.8	78.46	81.14	83.34	84.68	85.42	85.82	86.16	81.46

신 체 발 육 상 황

체격검사 1956~1960(5개년분)

서울사범학교 학생 조사

남 자 신 장

연령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인 원
1956	140.1 4	145.1 43	146.3 74	149.5 83	155.3 91	160.2 98	163.5* 56	165.8 37	166.8 31	165.9 12	529
1957	137.0 5	141.0 45	148.1 64	152.5 63	156.8 70	161.8 83	163.5 77	165.3 47	165.7 24	168.1 11	489
1958		140.5 64	146.0 61	152.7 59	158.3 76	162.4 113	164.5 88	164.8 63	165.6 11	3	543

【衣生活】

가정학회지

1959	141.7 6	142.4 110	147.4 131	151.7 81	158.0 75	161.7 81	164.8 93	165.3 74	165.6 13		
1960	139.1 23	141.5 134	148.3 129	154.4 126	159.4 61	161.9 81	164.2 93	165.3 74	166.5 13		734
평균 인원	140.5 38	142.1 396	147.1 459	152.2 412	157.36 373	161.6 474	164.1 430	165.5 268	166.16 99	166.57 26	2.975

남자 체중

연령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56	32.5	34.8	35.8	42.3	46.4	50.0	54.2	54.5	55.9	57.3
1957	31.6	33.8	38.7	42.0	45.7	51.5	53.4	55.1	55.1	58.0
1958		33.9	37.1	43.2	48.7	52.7	55.3	56.3	57.9	57.3
1959	32.4	34.1	38.5	42.2	47.5	53.3	55.7	57.6	56.7	
1960	33.2	33.7	39.6	45.1	48.8	51.2	54.9	57.0	59.7	
평균	32.43	34.06	37.54	42.96	47.42	51.74	54.70	56.1	57.6	57.7

남자 흉위

연령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56	66.1	70.7	71.9	75.6	80.6	84.2	86.2	87.8	88.6	88.3
1957	67.0	68.1	72.2	76.0	80.1	83.7	83.9	84.8	86.8	86.2
1958		70.2	72.6	76.1	81.6	84.1	87.0	88.4	89.0	86.5
1959	68.6	69.8	71.4	75.8	79.9	83.2	86.5	87.9	86.7	
1960	68.6	69.2	73.6	78.9	81.1	83.7	86.7	88.9	89.4	
평균	67.56	69.6	72.34	76.48	80.66	83.74	86.6	87.56	88.1	87.0

남자 좌고

연령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56	76.8	77.0	78.0	81.4	84.6	87.3	88.5	89.4	90.2	89.9
1957	75.7	77.0	80.4	82.6	85.6	88.3	88.5	90.3	90.5	92.1
1958		77.3	79.5	83.6	86.1	88.6	90.1	90.0	90.5	92.3
1959	77.2	77.8	80.9	83.5	86.6	88.6	90.6	91.6	91.6	
1960	76.5	77.9	81.1	84.2	86.8	88.7	89.7	90.8	90.5	
평균	76.54	77.4	79.78	83.06	85.94	88.3	89.45	90.22	90.14	91.4

체격

1956~1960(5개년의 평균)

남자

연령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신장	140.5	142.1	147.3	152.2	157.3	161.6	164.1	165.5	166.1	166.5
체중	32.4	32.6	37.5	42.9	47.4	51.7	54.7	56.1	57.6	57.7

흉 위	67.5	69.6	72.3	76.4	80.6	83.6	86.6	87.5	88.1	87.0
과 고	76.5	77.4	79.9	83.0	85.9	88.3	89.4	90.2	90.1	91.4

여 자

연령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신 장	139.1	142.4	147.2	150.8	152.6	153.5	154.5	155.0	156.0
체 중	33.2	36.2	39.9	44.2	46.3	48.6	50.4	51.2	52.0
흉 위	66.2	69.7	72.1	75.6	77.7	79.5	80.6	81.1	81.8
과 고	76.8	78.4	81.1	83.3	84.6	85.4	85.8	86.1	86.4

以上的 表는 서울사범학교에서 1956~1960年度에 실시한 身體檢査 統計表의 平均값이다. 이 統計表을 보면 每年 體力向上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것을 볼 때 그 原因이 어디 있는가를 잘 考察하여 그 原因을 解明하여야 하겠다.

전국 학도의 체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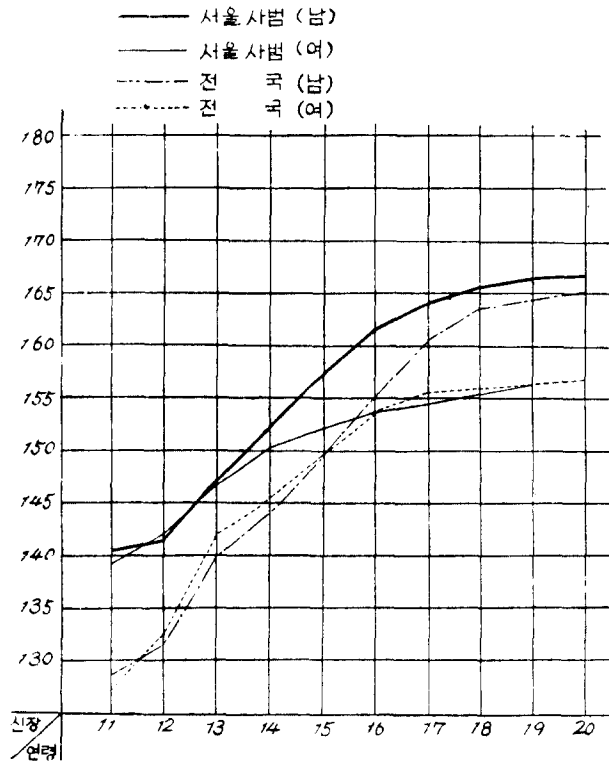
(1960년도 문교부)

구 분	연 령	신 장(Cm)		체 중(kg)		흉 위(cm)		과 고(cm)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국 민 학 교	7	111.7	111.1	18.3	18.7	55.9	55.5	61.4	61.2
	8	115.1	115.3	20.4	20.3	58.1	57.1	63.2	62.1
	9	119.0	119.6	22.3	21.7	60.7	59.2	65.2	65.0
	10	124.1	123.6	22.4	23.7	62.3	60.9	66.8	67.1
	11	127.9	126.3	26.6	25.7	63.9	62.7	68.4	68.5
	12	131.9	132.4	28.5	28.1	65.6	64.9	70.3	70.9
중 학 교	13	139.8	142.1	33.4	34.9	69.3	68.4	76.0	75.8
	14	144.3	145.2	37.3	37.4	72.0	70.9	78.5	78.5
	15	149.6	150.1	40.9	42.0	74.4	73.8	80.6	81.3
고 등 학 교	16	155.5	153.8	45.3	46.0	78.8	78.5	83.4	83.9
	17	161.0	155.3	51.9	48.0	83.9	80.3	86.7	85.0
	18	163.3	155.8	54.5	50.1	85.5	82.9	88.1	85.6
대 학	19	164.1	156.2	55.1	50.4	86.6	83.4	88.6	85.9
	20	164.9	156.9	57.3	51.6	87.7	84.5	88.8	86.3
	21	166.1	157.1	58.3	52.2	88.4	85.3	89.6	86.4
	22	166.4	157.2	59.0	52.3	89.1	86.1	90.1	86.5
	23	166.8	157.3	59.6	52.4	89.3	86.2	90.3	86.7
	24	171.9	157.4	60.0	52.6	90.0	86.4	90.5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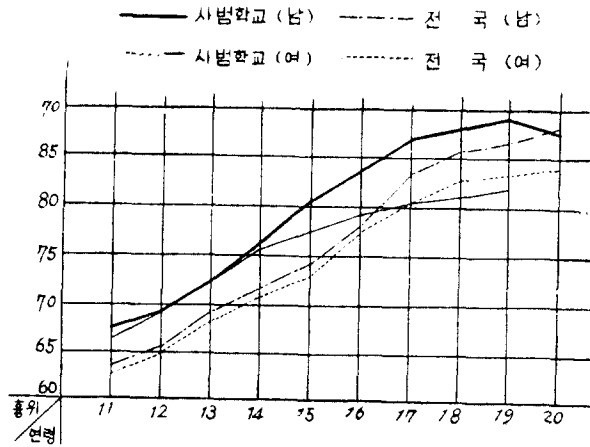
註 이 표는 문교부에서 1960년도에 실시한 각 시·도 대학·사범학교를 포함한 全國學徒의 신체 검사 統計表의 平均값이다. 이 統計表를 보면 日本人 學徒보다 體格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社會的으로 큰 問題이다. 우리는 體力向上을 爲하여 거국적인 努力이 必要하다.

또 統計에도 의심점이 있다. 우리는 每年 실시되는 신체검사를 精確하게 하여 文敎部에 빠짐 없이 보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젊은이의 體格 發達에 힘쓸 수 있는 資料를 正確하게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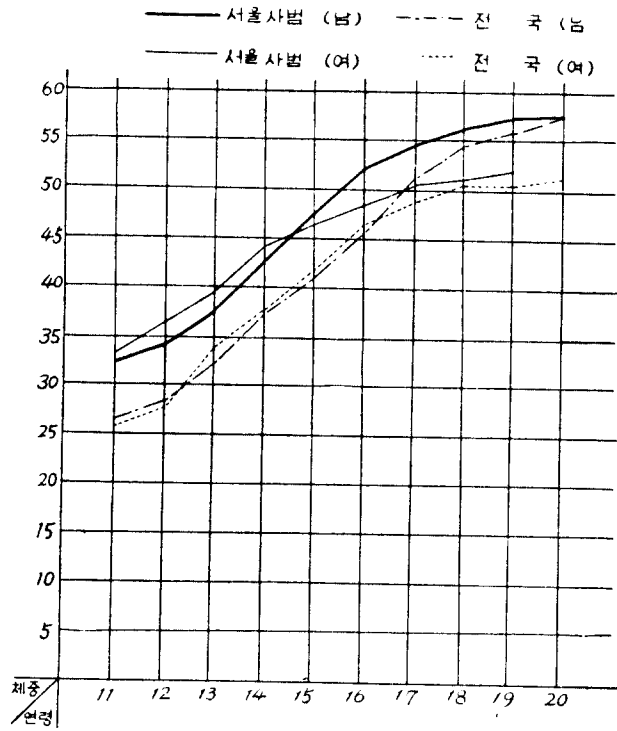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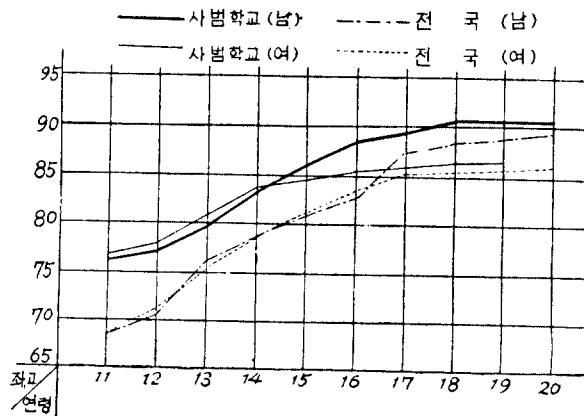
흉 위



체 중



좌 고



우리 나라 어린이 표준 치수

(단위 cm)

명칭		연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등	길	이	레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33
가	슴	돌	레	46	48	50	52	54	56	58	61	62	63	65	67	70	73
허	리	돌	레	46	48	50	50	53	55	57	59	60	61	63	65	66	남69 여67
영	덩	이	레	46	48	50	52	54	56	58	61	62	64	66	68	남72 여73	남73 여76
옷	길	이	레	36	38	43	45	50	56	58	60	64	66	71	76	82	84
화	리	장	레	33	37	40	42	44	46	48	51	53	55	58	60	62	65
머	리	돌	레	46	47	48	49	51	51.5	52	53	54	54.5	55	55	56	56
속	바	지	(판 즈)	21	22	23	25	27	28	29	31	34	36	38	40	41	42
반	바	지	지	22	24	26	28	30	32	35	36	37	38	40	42	45	48
긴	바	지	지	41	44	47	50	53	56	59	61	64	68	72	77	82	85

우리 나라 부인 표준 치수

(단위 cm)

명칭		구별		대 中 小		
				大	中	小
총	길	이		145	135	128
옷	길	이		115	107	100
등	길	이		40	38	35
앞	길	이		44	42	38
가	슴	돌	레	90	84	78
허	리	돌	레	75	66	60
영	덩	이	돌	100	92	85
윗			폼	37	35	32
앞			폼	38	34	32
등		넓	이	40	38	36
스	카	드	이	75	70	65
스			장	75	72	68
속	바		이	60	55	45
Hi	실		이	20	20	18
어	깨	넓	이	14	13	12
머	리	돌	레	57	56	55
목		돌	레	38	37	35
스		락	스	100	95	90
손	목	돌	레	17	16	15.5
손		돌	레	21	20	19.5
팔	꿈	치	돌	30	28	26
B.			P.	29	27	25
B. P.	길		이	20	18.5	17

몸에 꼭 맞는 치수는 內衣를 입고 재는 것이 原則이다.

內衣는 季節에 適應한 것을 입고 재는 것이다.

標準 지수는 各自의 지수에 關係없이 衣服을 만들 때 또는 學習上 參考로 製圖할 때에 必要한 지수이다.

혈 액 형(전체 男女) (서울사범학교 學生全體)

연 도	혈 액 형				검 사 인 원
	O	A	B	AB	
1954	338	364	298	104	1,104
1955	200	209	185	80	674
1956	109	129	112	39	389
1957	147	161	146	45	499
1958	180	209	182	49	620
1959	97	103	97	41	338
1960	103	90	116	33	342
계	1,174	1,265	1,136	391	3,966
%	29.6	31.9	28.6	9.9	100

혈 액 형(男·女の 比較)

연 도	혈 액 형	혈 액 형				검 사 인 원
		O	A	B	AB	
男	子	470	533	453	150	1,606
女	子	626	672	599	216	2,113
%	男	20.9	33.9	20.8	18.6	
	女	29.5	31.8	28.3	10.4	

이 表는 서울사범학교 全校生에게 1954~1960年度에 實施한 血液型 調査表이다.

血液型은 性格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至今 參考가 될가하여 적는다.

Design은 性格에도 많은 影響을 가지게 되므로 血液型을 調査함으로써 學生들의 性格을 把握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가 하여 調査해 본 것이다.

6. 個性과 design

design은 個人的 着裝을 對象으로 行하여질 때와 漠然히 廣範圍한 對象에 對하여 行하여지는 때가 있으나, 前者에서는 그 個人에게 알맞는 것이라야 하는 것은 勿論이다.

一般的으로 長點을 살리고 短點을 카바(caver)하는 마음으로 design하는 것이 根本이다.

이 特徵은 體形上의 外面的인 것과 性格上의 內面的인 것이 있다. 다음 2,3의 例를 들어 說明한다.

(1) 體型과 design

身長과 體重의 balance가 맞는 사람은 大體로 어떠한 것이든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라고 할 수 있으나 특히 키가 큰 사람은 大膽한 design 을 입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몸집이 작은 사람은 무늬의 크기에 注意하여 될 수 있는대로 산뜻하고 單純한 것으로 하다가 design 의 上下에 움직이는 線을 活用하여 키를 크게 보이게 하는 研究를 할 必要가 있다. 體重이 身長에 比하여 적은 사람은 衣服으로 cover 할 수 있는 面이 많으므로 過히 걱정할 必要는 없다.

다만 너무 여유 있는 design 이나 Drape 가 많은 것을 使用함으로써 도리어 몸을 가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反對로 體重이 身長에 比하여 over 하는 사람은 너무 꼭 맞게 다이어트로 하지 않는 것이다.

面을 單調롭게 하며 몸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 되므로 어느 程度 餘分이 있어서 陰影의 變化를 주는 것이 좋다.

部分的으로 缺點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 예를 들면 등이 굽은 사람과 Hip 가 큰 사람은 Waist 即 上衣의 下部에 파후를 使用함으로써 그것이 가리게 되고 팔이 굽은 사람은 소매뿌리에 파후를 使用함으로써 가늘게 보일 수가 있다.

近來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 美國에서 몸에 꼭 끼는 옷이 流行한다고 우리나라 女性의 體格도 생각하지 않고 無條件 꼭 끼고 뻥뻥하게 하여 살이 툭툭 빠져나올 程度인 원피스를 입고 거리를 活步하는 女性들을 夏節에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自己 體格은 생각하지 않고 流行이라고 即 美國에서 流行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以外에는 아무 뜻이 없이 된다. 그런 服裝을 함으로써 도리어 우리나라 女性의 體格의 缺點을 더 強調하는 現狀이 되어 버리게 된다. 우리 나라 女性 중에서도 近來에는 좋은 體格을 가진 女性들이 많아졌으므로 그런 服裝을 하여도 어울리는 女性이 많아졌지만 그것은 一部 特殊層의 것이고 그런 女性이 입은 것을 보고 自己 體格은 生覺지도 않고 입어서 도리어 自己 體格의 缺點을 強調하는 現狀이 되어 옷 음겨리가 되어 버리고 만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近來 Skirt 길이가 짧은 것이 流行임으로 거리에서 눈에 띄는 現狀인데 키가 적고 다리가 굽고 짧은 體格의 女性이 무릎까지 오는 Skirt 를 입고 自己는 가장 流行의 尖端을 걷는 것 같은 感을 가지고 거리를 活步하는 것을 볼 때 참 塞心한 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자면 許多한 現狀이 많지만 要는 이런 것들이다. design 이라는 것을 理解 못하는 데서 나온 現狀이라고 볼 수 있다.

(2) 性格과 design

體型은 主로 形을 左右하는 수가 많으나 性格은 色彩를 左右하는 수가 많다. 內向型의 消極的인 사람은 一般的으로 침착한 色이나 寒色系가 어울리고 外向型의 積極的인

고 明朗한 type은 大體로 華麗한 색이나 暖色系의 것이 잘 어울리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大端히 微妙한 것이 있으므로 一括的으로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中庸한 사람은 進出性 있는 暖色系나 明色系를 避하는 것이 좋고 豁족한 사람은 그 反對가 좋다고 하는 등 現在까지의 習慣에 依매일 必要는 없다.

第一 좋은 方法으로써는 거울 앞에 서서 1m 程度의 各種의 色布를 몸에 대보고 觀察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第三者와 討議하면서 分析해 가는 것이 第一 效果의이다.

結 論

綜合的인 服飾 design 에 對하여

被服의 design의 研究를 하려면 優先 第一로 體型을 調査하여 發育成長의 關係, 年齡과 其의 生活環境에 對하여 또한 時代的 流行心理에 關하여 研究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其研究의 範圍는 生理學的 領域에 依한 環境衛生으로 進展해서 生活全般에 關한 知識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今까지는 消息—인의 內容은 大槪가 形態의 意匠的 方面에만 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蠟손 spew에서 보는 것 같은 形式이 重點이 되어서 所謂 最新流行을 시키기 爲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目的인양 認識하게끔 되었다. “mode”라든가 “유행선” 등 일은 服裝을 만드는데 必要한 것은 當然한 것이지만 누구나 流行이 지난 時代가 틀리는 “스타일”을 가장 流行인 것처럼 design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冷靜히 design에 對한 使命을 生覺하면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는 어찌서 디자인을 하여야 하는가, 어찌서 服裝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생기었는가, 라는 根本論에 對해서는 言及치 않은 것이 많았다. 卽 그러한 迂遠한 問題에 對하여 研究하는 時間을 가지는 것보다 한가지라도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한층 實際的이고 더욱 效果的인 것 같이 生覺되고 있었다.

그러기 爲하여는 許多한 月刊雜誌가 있고, 스타일 book이 있고, mode 유행선의 show가 있어 언제든지 適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創作보다는 模倣하는 것에 進歩되어 그러한 것에 “mode資料”에 힌트를 얻는 것이 第一 가까운 일같이 認識하게 되었다. 流行을 따르는 것은 사치한 生活이며 또한 즐거운 일이며 時代의 尖端으로 달리는 것 같은 爽쾌한 氣分일 것이다. 그러나 流行은 時間的인 問題이며 恒常 거기에만 沒頭하면 「自己의 感情이든가 個性은 全然 없어지고 恒常 對他的이며 依存的인 現象」이 될 憂慮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自己自身을 아는 以上 적은 것이라도 創作하여야 한다는 意匠感이 있어야 다.

여기서 생기는 形態라든가 色彩의 配合이 비로소 自己를 떠나 他에 미치는 關係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服裝을 design하려는 생각이 있는 以上 적어도 自己의 身邊을 둘러보고 여러 現象에 對해 敏感한 센스를 養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服裝으로서

의 構成하여야 할 諸要素가 成立되는 것이다. 다만 服裝은 design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對한 携帶品, 生活要具 等等이 綜合的으로 步調를 맞추어 統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外國인이 近來의 韓國人の 服裝은 구두는 핑장이 좋은 갑비싼 것을 신고 있으나 그 사람의 셔츠라든가 넥타이 등의 携帶品과 體格을 上下 左右로 훑어보았을 때 그것이 여러 모로 맞지 않는다. 卽 不統一하다고 惡評을 하였다고 한다. 「惡評이라기 보다는 그것은 도리어 슬픈 事實이며 一種의 虛榮으로 보이고 虛飾으로 생각되게 된 것은 當然한 것이다. 可量 값싼 材料를 使用한 것이라도 其形態라든가 色彩에 어딘가 말할 수 없는 氣品과 性格을 가진 統一된 design 이라면 도리어 그것이 더 아름답고 高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卽 저 구두가 신어보고 싶다 저 服裝을 입어보고 싶다 라는 虛榮이 自己自身을 沒却시키고 마는 것이며 一種의 狂人的 物慾에 눈이 어두어 버림으로 그 結果는 큰 그릇된 方向으로 달음질 칠 뿐인 것이다. 그러함으로 均衡잡힌 端正한 姿勢를 만들려면 좋은 designer 가 되겠다는 마음씨가 必要한 것이다. 먼저 말한바와 같이 銳敏한 센스(感覺)의 所有者가 되려면 相當한 努力이 있어야 한다. 努力없이 他人의 것을 模倣하든가 또는 그대로 꿀떡 넘어 삼킨다는 것은 消化가 안 되는 結果가 생김은 當然한 일이다. 優先 服裝을 design 하려면 적어도 素材를 잘 研究할 것과 線의 아름다움이라든가 面에 對한 重要性, 形態構成에 關한 基礎的 知識 卽 統一에 對한 基本的인 觀念을 把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最後로는 着用法에 對한 것이다.

着用法이라면 下衣부터 始作하기로 하자. 體型은 天性으로 이것을 訂正하는 것은 整形外科의 領域에 屬하므로 普通人으로는 不可能한 일이다.

다음은 所謂 綜合的인 形態構成의 知識이다. 服裝이라하면, 帽子로부터 구두 끝까지를 包含한 廣範圍한 것이고 衣服은 다만 其 작은 一部分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衣服을 中心으로 하였을 때에 諸要素를 念頭에 두고 그 要素를 充足시키는 各分子를 構成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苦充이 많이 있다. 衣服은 첫째로 選擇하는 데 洗鍊된 感覺이 必要한 것이다. 이것을 世界的으로 말하면 American mode 라든가, Pari-mode 라든가와 같이 流行型으로 生覺되지만 自己의 趣味라는 것은 다만 表面의 形式에 치중한 形象觀이 아니라 그 사람 自身の 思想이 感觸된 內面的인 表現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趣味는 個性的인 것이며 集團性的인 것이 아니다. 이 趣味는 精神的 作用에 依해 綜合的인 服裝은 解決되는 수가 많다. 自己趣味를 살려서 選擇觀을 高度로 올려 보면 理性的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綜合的인 選擇觀이 近來와 같이 卑俗에 흘러 그릇된 所謂 「米國式」 「Pari 式」 等 格에 맞지 않은 低俗한 趣味에 빠지는 수가 많은 것이다.

低級한 趣味는 大概 여러 곳에서 이리 저리 사서 모은 被服의 백화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自己가 創作한 design 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服裝의 統一性이라는 것에는 裝飾의인 意味도 있지만 實用性이 豊富한 諸分子의 集合型이 第一로 必然的으로 具備하게 되는 것이다. 卽 自己身邊의 몸가짐부터 發足해서 나중에는 對他的으로 自己裝飾을 宣傳하는 流行이 생기는 것이다. 洋裝의 악세사리도 그 一方法의 裝飾構成인 것이다. 卽 服飾手藝로서 衣服裝飾에 使用하는 design 은 當然이 있어야 할 곳에 裝飾하는 것이 眞實한 design 인 것이지만 때로는 없어도 되는 裝飾을 한다든가 도리어 없는 것이 아름다운 때도 있다.

“刺繡”라든가 번쩍이는 물-裝飾用 끈으로 裝飾하는 design 은 妖術師라든가 特殊한 舞臺 意匠에는 必要한 方法인지도 모르나 普通은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더욱 高尚한 感이 드는 것이다. 要는 過重된 裝飾의인 design 은 用途와 目的을 그릇되게 하면 다시 볼 수 없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루네싼스 時代의 服飾을 지금 想像하여 보면 그 過重한 裝飾의인 design 은 特種의 劇的인 “센”에 지나지 않으며 舞臺 意匠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時代의 建築이라든가 室內裝飾을 같이 生覺하여 보면 “로코코” 時代 “바로코” 時代의 “오바테코레이손”(過重裝飾)과 服裝이 一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統一된 意匠의 必要的인 結果가 住居와 建築樣式과도 떨어질 수 없는 聯關性이 있다는 것을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頭髮裝飾에 있어서도 古典的인 頭髮 型態에다 (피어마 하지 않고 비녀 꽂고 쪽진 머리) 洋裝은 참으로 우수한 對照的이라고 하겠으나 洋裝에 韓服은 도리어 異常스럽지도 않다. 古典的인 머리型에다 韓服차림은 서울市內의 모든 環境을 參酌하여 볼 때 머리型 그 自體가 마치 遺風的인 感이 들게 되는 것이다. 卽 被服 design 의 統一性은 가장 重要한 點이면 그 環境風土 習俗性과 맞치 하는 것과 같이 오리지날한 아이디어를 자아내지 않으면 도리어 그 自體의 意義가 疑心스럽게 되는 것이다.

素材로서 본 統一的인 design 은 其 素材의 硬直性, 柔軟性, 粘着性等에 依해 품이 달라지는 것이다. 卽 線에 依해 裝飾效果를 낼때의 두터운 素材의 線은 크게 보이는 感이 들고 얇은 絹, 그레뿌, 데싱, 나이롱 등은 自然히 細密한 線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體型의 曲線美를 내고자 할 때는 얇은 素地를 使用한 것이 좋다.

드레빙 時에 玉洋木으로 품을 取할 때, 調整時 그레뿌 데싱이라든가 실크라든가 또는 合成纖維를 使用할 때에는 各己 그 材質에 따라 다른 外觀을 가져 오게 한다.

卽 材質 그 自體의 接觸感에 依해서 線의 表現이 달라지므로 미리 使用하려는 素材를 考慮해서 工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卽 우리들의 要求하는 design 은 材質의 아름다움이라든가 接觸感에 對해서는 盲目的이며 甚한 것은 自身의 體型조차 認識하지 못하고 다만 模倣에 가차운 form 을 좋아함은 特別히 警戒할 일이다.

스콧치, 다당에서 볼 수 있는 부레드라든가, 너무 큰 무늬의 것은 적은 韓國人의 體型에는 그리 適應치 않을 것이다.

韓國女性의 體格은 西洋人에 比하여 키가 작고 더우기 다리가 굵고 짧고 뚱뚱하며 허리가 굽은 즉 體格으로서는 西洋人에 比하여 缺點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缺點이 많은 體格에 입혀야 할 衣服이므로 外國의 스타일 book 을 보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우리 韓國의 住宅의 構造樣式을 잘 考慮하여 實質的인 입기 便利한 服裝이라야만 하겠다. 全的으로 椅子式 生活樣式에서 입는 服裝을 온돌방에서 即 앉는 樣式의 住宅에서 生活하는 우리 韓國女性의 服裝으로서는 더욱 깊이 생각하여야 하겠다.

例를 들면 요즘 所謂 流行되고 있는 맘보바지만 하더라도 하도 다리통을 좁게 하여 온돌방에서는 다리를 구부리고는 앉지를 못하고 앉을 때는 恒常 다리를 뻗치고 앉는 現狀이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design 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生活現實에 맞은 實質性을 띤 服裝이라야만 한다.

即 美的으로만 가추어진 服裝은 完全한 服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觀念을 머리의 두고 韓國女性의 體格, 趣味, 住宅, 風習, 時代等の 長點, 短點을 잘 考慮하여 거기에 알맞는 服裝을 design 하여야 하겠다.

韓國女性을 西洋女性과 比較하여 볼 때 서울사범학교 학생들의 5개년 간에 體格 檢査한 것을 보면 西洋女性의 體格에 比하여 身長이 10cm 以上이나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韓國人의 生活基準에서 無理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西洋人 中에서도 독일 女性은 比較的 적고 米國女性은 크고 佛蘭西 女性은 肥滿하고 身長은 독일 女性에 比하여 적다고 한다. 完全한 體格은 上肢와 下肢가 아름답고 어깨 넓이 목둘레 가슴둘레等 各部分이 아름다운 均衡을 가짐으로써 아름다운 體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體格하면 身長만 크면 第一 좋은 것 같이 生覺하는 사람이 많지만 體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各部分에 均衡이 잡혀야만 한다는 것을 깊이 理解하여야 한다. 身長과 坐高를 比較하여 보면 理想的인 美的에 맞은 比例는 身長의 $\frac{1}{2}$ 의 坐高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서울사범학교 學生들의 體格調查 結果나 문교부에서 調查한 全國 學生 男女의 體格調查 結果를 보면 身長과 坐高의 比例가 坐高가 身長의 $\frac{1}{2}$ 보다 15cm 나 많다(男女 全部). 이것을 볼 때 우리 韓國 사람의 體格을 좀 더 美的으로 完成시키려면 下肢을 길게 하여야만 되는 結果에 到達하게 된다. 이것은 生活樣式을 改善하여 即 椅子式 生活을 함으로써 또 科學的인 食生活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生覺한다. design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衣服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衣服을 입을 수 있는 體格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一層 더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韓國民族의 體格을 어떻게 하면 向上시킬 수 있을가 하는것이 重要한

問題이라 우리 韓國女性들은 하로 빠베 이러한 難點을 解決하여 우리 韓國民族의 모든 面에 맞는 服裝을 研究하여서 韓國의 特徵을 살릴 수 있는 服裝 design 을 研究하여 입도록 하는 것이 時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 | |
|-----------------------|---------------|
| 1. 被服 design 의 原理 | 成 田 順 著 |
| 2. 西洋服裝文化史 | 青 木 英 夫 著 |
| 3. Design 의 便利帖 | 遠 藤 政 次 郎 著 |
| 4. 洋裁講座(design 과 配色) | 主 婦 之 友 社 發 行 |
| 5. 被服大辭典 | |
| 6. Vogue Pattern Book | |
| 7. 圖解 服飾辭典 | 田 中 千 代 著 |

(축) 대한가정학회지
제 3 호 발 간

동일가구공업주식회사

仁寺洞 15 TEL ③—1917

代 表 金 東 植